

2019 참관기

글. 박민상 MBC 제작기술국 보도기술부 차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



베를린 박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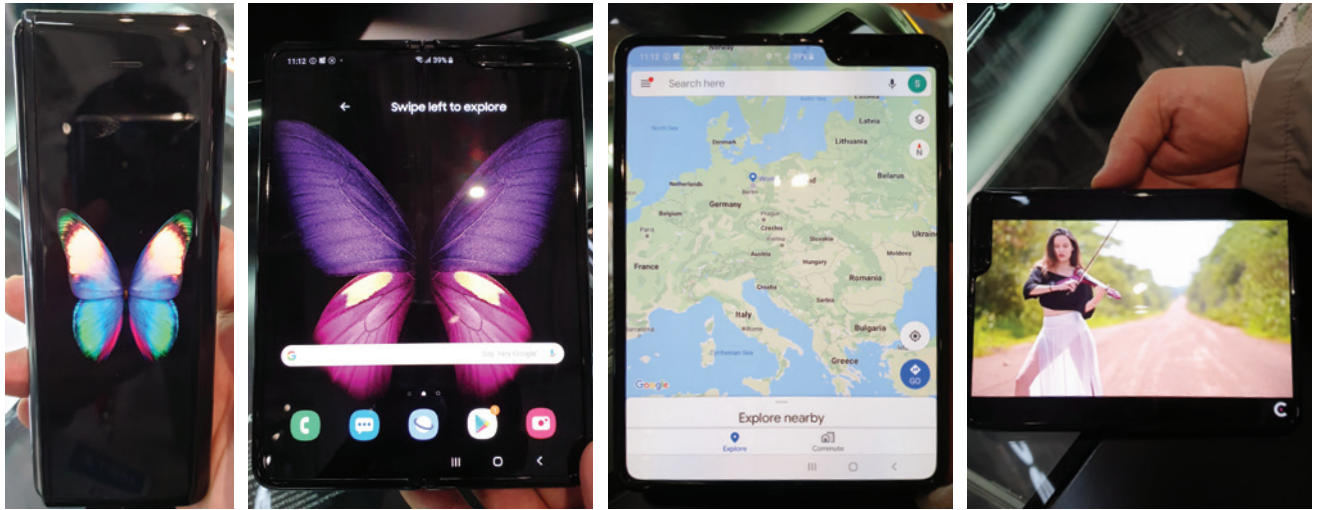
매해 9월에 세계의 선도 제조 기업들이 베를린 박람회(Messe Berlin)로 모여든다. 일명 IFA로 알려져 있는 국제 가전박람회(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는 매해 Berlin에서 열리는 국제 무역 전시회다. 냉장고, 전자레인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자 제품을 총망라해 소개한다.

올해는 6일부터 11일까지 약 1,800개 업체와 25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삼성과 LG는 큰 규모의 전시장과 신기술 제품으로 IFA에서 주목을 끌었고 그 외에는 일본, 중국, 유럽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삼성,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갖추었다

‘Connected Living’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삼성 독자의 IoT 플랫폼인 SmartThings와 다양한 기기들의 연동을 보여주었고 스마트폰(갤럭시 폴드 5G), TV(QLED 8K TV), 주방(Bespoke 냉장고) 등으로 부스를 다양하게 설치해 놓았다. 갤럭시 폴드(9월 6일 출시, 약 240만 원) 전시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30여 분간 줄을 서야 했다. 폴드는 반으로 접혀진 상태에서 휴대가 용이해 보였고 양옆으로 펼치면 스마트 패드에 버금가는 넓은 화면으로 바뀌어 기존 휴대폰과는 확연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

‘QLED 8K’ 존에는 55인치부터 98인치까지 전 라인업을 전시하였다. 입력되는 영상 화질에 상관없이 8K 수준으로 변환해 주는 인공지능 화질 엔진(퀀텀 프로세서 8K AI)을 탑재하여 라이브와 스트리밍, 모바일 미러링 등의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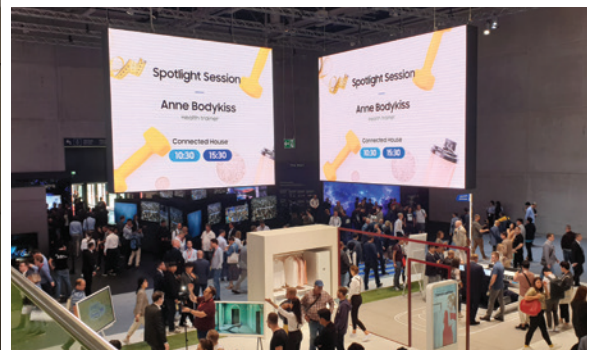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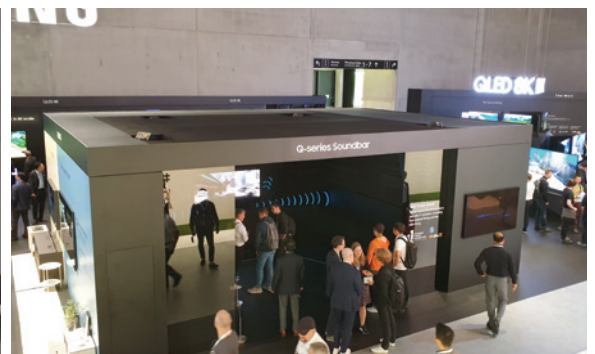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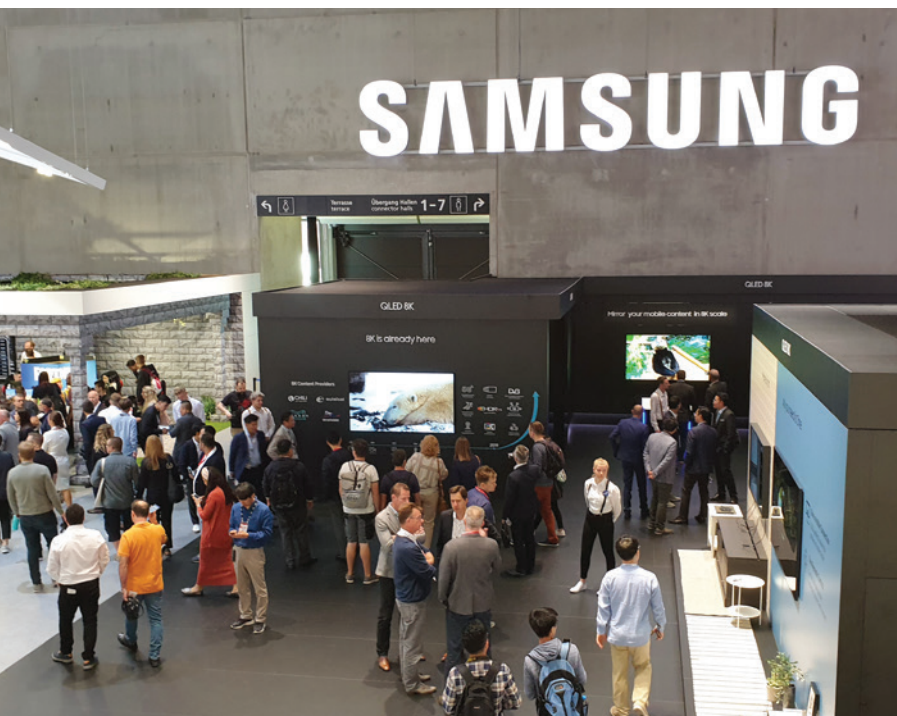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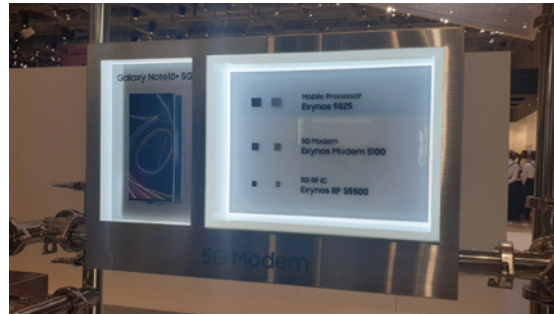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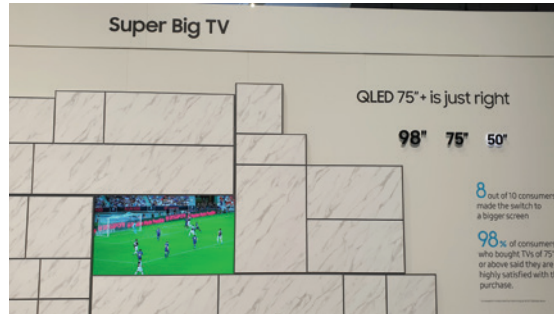
갤럭시 폴드



삼성 Bespoke 존

‘Bespoke’ 존에는 모듈형 냉장고를 전시하였다. 구매자가 원하는 컬러와 포맷으로 구성이 가능하여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서로 다른 취향과 주거행태에 따른 ‘소비자 맞춤형 가전 트렌드’를 보여준 공간이었다.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의 주방이 협소한 특성을 고려해 상냉장·하냉동 타입의 2도어 냉장고와 1도어 냉장고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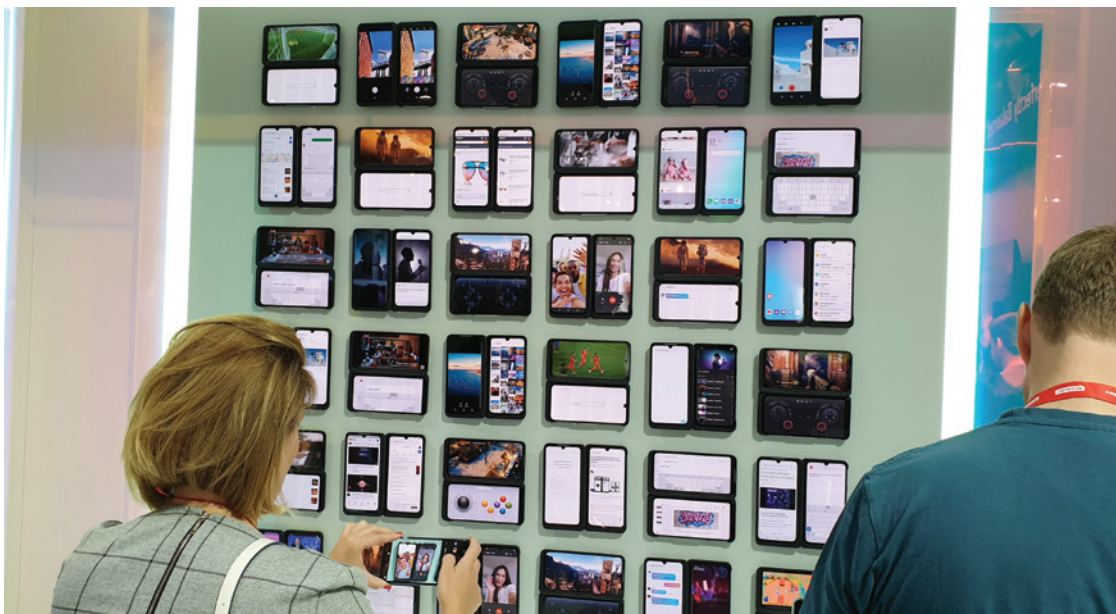




LG, 첨단의 제품을 선보였다

LG의 V50S ThinQ와 전용 액세서리인 LG Dual Screen은 ‘Best of IFA 2019’ 수상하며 해외 언론에서도 혁신적이고 실용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면에 알림 창이 있어 스크린을 펼쳐보지 않아도 시간, 날짜, 배터리와 문자, 전화 수신 등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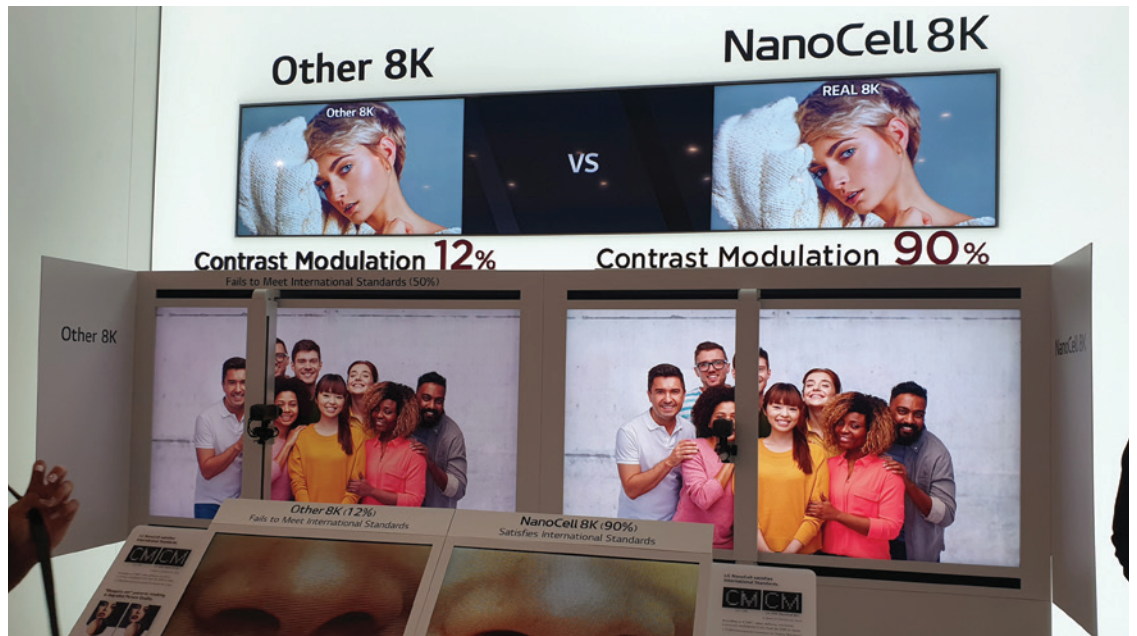
또한, 듀얼 스크린으로 휴대폰 앱을 다양하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을 것으로 보였다. 활용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 스크린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다른 스크린에서는 관련 내용을 웹 검색하거나(서로 다른 앱의 동시 사용) 스크린 2개를 각각 나누어 게임 화면과 컨트롤 패드로 이용하는 것(동일한 앱의 분리 사용) 등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360도 프리 스탭 힌지 기술이 적용되어 어느 회전 각도에서도 고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LG 듀얼 스크린 전시



또한, 8K TV 화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부스를 전시했다. LG NanoCell 8K TV와 다른 제조사의 8K TV였다. LG NanoCell 방식의 8K TV가 90%, 삼성으로 예상되는 Other 8K TV는 12%의 화질 선명도를 보인다고 표시해 놓았는데 실제로 카메라 2대로 TV 화면의 동일한 부분을 촬영, 확대해 놓은 화면을 확인해 보니 양사 제품 간에 해상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보였다. LG는 세계 최초 88인치 OLED 8K TV를 이달부터 유럽과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8K TV 화질 비교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 위원회(ICD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isplay Metrology)에 따르면 해상도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화소 수(Addressability) 외에도 화질 선명도(Contrast Modulation) 값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시네빔 레이저 4K(스크린에서 10cm만 떨어져 있어도 100인치 대화면을 보여주는 초고화질 빔 프로젝터, 감상할 때 프로젝터 앞에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음)와 OLED R(세계 최초 롤러블 TV, 압도적 화질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말림,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두께가 얇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LG는 올해도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OLED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260장을 곡면상에 집약해 입체적으로 진열해 놓은 전시관을 선보였다. 초대형 스크린과 단순한 평면을 넘어 공간상에 설계한 시각 디자인 조형은 여타와는 다른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The straight line belongs to men, the curved one to God’라는 Antoni Gaudi 말을 인용하며 올레드만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올레드는 스스로 빛을 내는 패널로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으며 두께가 얇고 가벼워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다.



OLED 사이니지 조형물

5G, 관련 움직임은 Deutsche Telekom 부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5G와 연계한 VR 체험 스튜디오, 게임, 스포츠 중계 데모 앱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 중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은 농구 경기장 화면(Wide Shot) 위에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경기, 선수 관련 메타데이터를 오버레이하여 보여주었다. 메타데이터로는 선수 이름, 포지션, 득점 포인트, 이동속도, 팀 포메이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앞으로 정식 출시된다면 5G와 스포츠 중계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Deutsche Telekom은 지난 9월 5일에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독일 주요 5개 도시에서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베를린 IFA 소비자대전 전시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도이치텔레콤의 초기 5G 서비스는 베를린, 본, 뮌헨, 다름슈타트, 뮌헨 일부 지역으로 한정했으며 베를린에서만 66개의 5G 안테나를 포함하여 129개의 5G 안테나가 5G 연결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독일 최대 20여 곳의 도시에 5G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이치텔레콤 5G 스포츠중계 앱

국내에서도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해 통신사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는 어느새 3G, 4G를 거쳐 5G로, HD에서 4K, 8K로 거듭 진보하는 기술 혁신을 맞고 있다. 올해 IFA 전시회는 소비가전 산업이 빠르게 변모하며 방송·통신 및 IT와도 차츰 접목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

전시장 스케치

